연예인 섭외 수천만원 쓰는 대학축제 '갑론을박'

찬 학교 활성화 위한 시도…조선대 뉴진스·싸이 초대 성공적 축제

반 총학, 연예인 섭외 매몰…그 예산으로 캠퍼스 시설 개선 먼저

광주지역 대학교가 축제기간에 인기 가수나 DJ 등의 연예인을 섭외하기위해 수천만원의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초청이 '일회성 예산낭비'라는 비판과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13일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는 지난해 축제비용 9900여만원 중 40.3%(4000만원)을 연예인 섭외 비용으로 사용했다.

호남대는 지난해 축제비용(9500만원)중 64.8%(6100여만원)을 비와이와 최예나 등 인기 가수를 섭외하는데 썼다. 광주교대도 지난해 총 축제비용(4850만원) 중 22.6%(1100만원)을 연예인 섭외비로 소비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대학 축제 예산 중 대부분이 연예인 섭외비로 지출돼 대학이 콘서트장으로 변질됐다"면서 "연예인 섭외비는 전형적인 일회성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대학 축제의 주요 콘텐츠가 '연예인'이 되면서 관련 업무를 용역업체나 기획사에 맡기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시민모임측의 설명이다.

실제 전남대 여수캠퍼스도 지난해 청경대동제 용역 입찰에서 국내 정상급 가수 및 클럽파티 DJ, 정상급 사회자 등을 섭외 조건으로 제시했다.

시민모임은 "매년 학교재원이 줄어드는 반면 연예인 섭외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축제 비용은 학교가 부담하는 교비, 재학생이 낸 학생회비 등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결국 대학들의 부담만 커져간다는 지적이다.

대학가에서는 축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선 연예인 섭외가 필수적이라는 의견과 대학 축제의 본질이 사라진 예산 낭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년 '대학 축제 라인업'이 SNS에 공유되고 누가 섭외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관심도도 달라지는 만큼 대학과 학생회가 연예인 섭외에 매달리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치러진 조선대 대동제는 5·18을 추념하는 뜻에서 그동안 5월에 대학축제를 열지 않았던 금기를 깨 논란이 됐지만, 뉴진스와 싸이 등 인기가수를 섭외하면서 '성공적인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대의 경우 대동제 이후 "학생회가 일을 진짜 잘한다", "무대 기획력과 섭외력이 빛났다"는 등 학생들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전남대의 경우 올해 봄 축제 당시 유명하지 않은 가수를 섭외하면서 "돈 아깝다. 그 돈이면 조선대에 온 가수 한 팀은 부를 수 있지 않았겠냐"며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떤 연예인을 섭외하느냐가 축제의 성패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조선대 재학생은 SNS에 게시글을 올려 "축제에 연예인 부를 돈 있으면 공대와 체대 건물 도색하고 캠퍼스 도로 포장이나 했으면 좋겠다. 문의하니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들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축제 때문에 대학을 다니는 건 아니지 않나. 어차피 돈 쓸거면 차라리 학회나 세미나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며 대학의 본질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생 자치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학 총학생회가 축제를 열고 연예인을 섭외하는 데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대 커뮤니티에는 "총학은 무슨 일하는 곳이냐. 학교 기숙사에 벌레도 나오고 시설이 열악한데 총학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냥 축제 이벤트 준비만 하면 되는거냐"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활동가는 "대학 축제가 참여·다양·진취성의 전통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광주지역 일부 대학들은 축제 집행 예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한 학사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충장축제 50여일 앞으로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개막을 50여일 앞두고 13일 광주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발표회가 열렸다. 안도걸 국회의원, 임택 광주동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의장, 김춘성 조선대 총장을 비롯한 동구민들이 축제의 성공을 염원하는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병원도 전공의 107명 일괄 사직처리

광주·전남 수련병원, 68명 모집 중

조선대병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에서 떠난 전공의(레지던트) 107명을 일괄 사직처리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광주·전남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모두 수리〈8월 9일자 광주일보 1·6면〉됐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12일 조선대병원 소속 전공의 107명에 대한 사직서를 일괄 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전공의 6명은 계속 조선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병원도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고 2월 29일자로 했다.

앞서 전남대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 처리하고 광주기독병원도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모두 처리함에 따라 조선대병원도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선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이후 생기는 의료공백을 메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의나 전공의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상급병원 운영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을 예고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광주·전남 수련병원은 전공의 모집 연장 인원(TO)으로 상반기 전공의 채용 당시 선발하지 못한 총 68명(전남대병원 28명, 조선대병원 40명)을 모집중이다. 연장 모집기한은 레지던트는 14일, 인턴은 16일까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기념재단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30일 대구 공연팀 축하 무대 등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5·18기념재단이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30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세대를 넘어, 세계와 함께'를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으로부터 14년만인 지난 1994년 출범했다.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후 진상규명과 오월 정신 계승을 위한 구심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출범의 계기가 됐다. 이어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운동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5·18기념재단이 출범했다.

기념식은 감사·공로패 증정, 재단 30년사 출간 보고, 새로운 30년을 향한 '오월 광주 다시 시작' 메시지 발표, 국립트라우마센터 '오월소나무합창단'과 대구지역 '밴드 아프리카'의 축하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부대 행사로 오는 22일과 30일 5·18 당사자와 5·18기념재단 전직 임원들로부터 5·18에 대한 회고와 앞으로의 전망을 듣는 행사가 열린다.

29~30일에는 '동아시아네트워크 기관 국제활동가 워크숍', '5·18국제포럼'이 개최되며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재단의 국제연대사업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을 초청하는 '5·18아카데미' 행사도 추진된다.

재단은 광주비엔날레와 협업해 5·18기념문화센터 지하 1층 전시장에서 '아메리카 파빌리온' 전시를 개최하며 교사 간담회, 구술참여자 간담회, 5·18문학상 평가간담회도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 초·중·고 주변 30m 내 담배 못피운다

17일부터…유치원·어린이집 10m→30m로 확대

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법적으로 학교 금연구역을 지정·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에는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존 시설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통학로 금연거리 33개소 안내 표지와 버스정류소 금연 노면표시를 정비한다. 또 포스터·스티커 배포, 대중교통·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금연구역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일보 72년
SINCE 1952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無 착색료 감미료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